

# “5·18 상습 왜곡 지만원 이번엔 엄벌해야”

### 검찰, 북한군 개입설 허위 사실 유포 불구속 기소

#### ‘광주 왜곡’ 4번째 법정에서 ... “명예훼손 명백” 비난 빚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맞선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하는 등 5·18을 줄기차게 왜곡하고 있는 지만원(74)씨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지난 2002년 일간신문에 5·18 왜곡 광고를 낸 것을 시작으로 ‘북한군 개입설’, ‘김대중 전 대통령, 북한 모의 후 광주시민학살’ 등 황당한 주장을 펴오다 2차례 유죄판결을 받은 지씨가 과오를 뉘우침 없이 또다시 국가폭력에 맞선 광주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다 법의 심판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24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로 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 4명을 ‘5·18때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뜻을 담아 ‘광수’로 지칭하면서 비방한 혐의다. 지씨가

‘광수’라 지목한 4명은 북한특수군이 아니라 부당한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 상항실장 박남선씨 등 4명으로 모두 민주화운동공자로 인정받은 인물이었다. 이들 외에도 광수로 지목된 광주시민 10명이 지씨를 조만간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심어 낸간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지씨는 과거에도 5·18 왜곡을 일삼다 기소돼 2차례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지씨는 지난 2002년 동아일보 등 신문에 5·18 왜곡광고를 실었다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003년 1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씨는 이어 2009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 당시 북한과 짜고 광주시민들을 학살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게시해 물의를 빚었다. 이회호 여사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2013년 대법원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대통령이 북한과 모의해 5.18 당시 광주시민을 학살한 사실이 없는데도 믿을 만한 객관적 근거 없이 추측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문제는 2차례 유죄 판결과 달리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무죄 판결이다. 그는 지난 2008년 ‘5·18은 폭동이요 북한이 개입한 내란음모였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5·18단체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재판에 넘겨졌었다. 당시 법원은 무죄 판결 이유에 대해 “지씨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 개개인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5·18은 지씨가 (왜곡하는) 글을 올린다고 해도 사회적 평가에 대한 근본적으로 바뀔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지씨에 의해 북한 특수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광주시민들을 변호해온 임태호 변호사는 “과거(2013년) 대법원이 확정된 무죄판결이 지만원씨는 물론 일베 등이 5·18 왜곡을 퍼는데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사안은 지씨가 북한군으로 지목해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들이 있고 그 증거가 있으므로 유죄판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도 “수년간 끊임없이 5·18을 왜곡, 비방하는 지만원씨를 사법부가 엄벌함으로써 진실이 더이상 왜곡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검찰과 경찰이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를 한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에 나선다. 늘어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뿌리뽑기 위해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5일부터 음주 교통사고 사건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사법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동승자의 형사처벌 강화, 음주 사망·상해 교통사고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이 포함된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번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원에 차량 몰수를 구형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단계부터 형법 제48조의 몰수 요건을 검토해 미리 차량을 압수한다.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연합뉴스

### 운동선수 합숙소 77곳

#### 전남소방본부, 안전대책 추진

전남소방본부는 도내 운동선수 합숙소 77곳에 대한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합숙소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월 1회 ▲안전 서한문 발송 ▲소방안전교육 ▲인명피해 방지훈련을 한다.

학교와 합숙소 관계자들이 소화기, 감지기 등 소방시설 유지 관리를 잘하도록 하고 비상구,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방지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황사에 갇힌 광주도심 신안군 흑산도와 흥도에 한때 황사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광주·전남 대부분지역에서 옅은 황사가 관측된 24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한 고층건물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기상청은 이번 황사가 25일부터 차츰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세월호 아픔이 공감으로 ... 꽃으로 피어난 이야기

### 광주시민상주모임 ‘사람꽃 피다’ 출판

광주에서 기후변화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운화(47)씨는 2014년 4월16일 정소를 하다가 세월호 참사 소식을 접했다. 처음에는 날마다 터지는 대형사고의 하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유가족들의 절규를 보면서 일상생활이 정지됐다.

임씨는 스스로 ‘어쩌면 4·16은 나에게 내리는 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후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그러던 중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주모임’에 발을 디뎠다. 임씨는 다른 시민 상주들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진행하고 있다.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에서다. 그리고 지난 2년간의 활동을 회원간 상호 인터뷰를 통해 기록했다.

광주시민상주모임 회원들의 생각과 활동이 두 권의 책으로 묶여 세상에 나왔다.

광주시민상주모임은 지난 23일 광주시 동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사람꽃 피다’〈사진〉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꼬박 1년이 넘는 제작기간이 걸린 이 책의 출간에는 모두 100명이 참여했다. 시민상주로 살아온 지난 2년여의 이야기를 회원 서로가 ‘인터뷰어’와 ‘인터뷰이’ 역할을 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진실을 인양하려는 실천과 행동의 기록’이라는



책의 부제처럼 회원들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고백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민상주모임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광주 일곡동, 수완동 등 4곳에서 진행되던 마을 촛불모임 관계자들이 만나면서 꾸려졌고, 이후 주부, 학생, 직장인 등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온 이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함께하면서 현재는 회원이 3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 2년 동안 세월호 가족과 함께 전국을 누비기도 했고, 정기적으로 촛불모임 등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남긴 숙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이다.

회원 중 한 명인 이민철 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세월호와 함께 한 꿈과 활동을 담으려 노력했고, 시민상주모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마을 촛불과 안전한 마을, 인권마을 운동에 대해서는 다음 과제로 남겨뒀다”며 “인터뷰를 통해 많은 회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월호 참사가 개인의 삶과 사회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어야 재발을 막고,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창사 64주년

Trust Forever!

## 새마을금고는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을 소중히 지켜가겠습니다

예금보호제도도 지원준비금제도로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드립니다.

<b>오늘의 날씨</b>		해돋이 05:48	달ตก 21:53			
		해질 19:13	달질 07:47			
<b>건강관리 주의</b>						
대체로 맑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11/26	보성	맑음	7/24	
목포	맑음	10/22	순천	맑음	10/25	
여수	맑음	13/21	영광	맑음	8/24	
나주	맑음	8/26	진도	맑음	8/22	
완도	맑음	11/22	전주	맑음	10/26	
구례	맑음	7/26	군산	맑음	9/24	
강진	맑음	8/23	남원	맑음	7/26	
해남	맑음	7/24	흑산도	맑음	10/17	
장성	맑음	7/25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안바다	북동~동	0.5	북동~중	0.5~1.0	
남부	안바다	북동~중	0.5~1.5	북동~중	0.5~1.5	
남해	안바다	북동~중	1.0~2.0	북동~중	1.0~2.0	
	안바다(동)	북동~중	1.5~2.5	북동~중	1.5~2.5	
	안바다(서)	북동~중	1.5~2.5	북동~중	1.0~2.5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4:01		09:11		
		16:01		21:13		
여수		10:43		04:42		
		23:09		16:37		
◇ 주간 날씨						
26(화)	27(수)	28(목)	29(금)	30(토)	5/1(일)	2(월)
12/24	13/18	11/20	9/23	10/25	11/24	11/24